

‘공부의 달인...’ 쓴 고미숙씨 무각사서 독자와의 만남

“몸으로 실천하는 공부”가 최고

“공부를 일상 속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소유하는 공부 안됩니다. 나눠주는 행복한 공부를 해야합니다.”

23일 오후 7시 광주서 서구 상무지구 무각사 문화공간 로터스 테라스. ‘공부의 달인 호모 쿠파투스’ 등을 쓴 고전평론가 고미숙(50·연구공간 ‘수유+너머’)씨가 초청돼 작가와 만남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문화공간 로터스가 8월 열릴 ‘인문학 서당’을 알리는 자리로 주선한 것이었다.

이날 자리에는 광주대학교 학생 30여 명이 단체로 참석한 것을 비롯해 학부모, 시민 등 200여 명이 몰려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날씨 이야기로 독자와의 만남을 시작한 그는 “공부도 자연처럼 순환의 원리가 있다”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공부지만 결국은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

“지식과 일상 하나로 묶어

공동체와 함께 나눠야”

200여명 몰려 뜨거운 호응

나의 시·공간적 위치를 알고 모든 생명체와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최선의 공부”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책 내용을 들어가며 “과학 기술의 성과로 모든 인간이 최고의 문명에 다 접속할 수 있음에도 정보의 더미 속에 갇힌 채 소통의 부재를 겪고 있다. 대상화하고 소유하는 공부를 버리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인복’(人福)있는 공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동의보감’의 광대무변한 세계에 몰입하고 있다는 고씨는 “삶의 원리와 지혜를 알게 하는 인문학은 일상 속에 멀리 있지 않다”며 “공동체 속에서 공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전을 찾아 그것과 접속해야 한다”고 목적을 높였다.

또 ‘논어’처럼 공부를 일상 속에 들어오게 해야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네 인생은 정말 고귀한 것’이라고 일러주고 아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몸으로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지식과 일상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고씨는 “연구공간 ‘수유+너머’ 강사진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인문학 서당은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함께해, 입으로 암송하



고 손으로 쓰며 고전의 비전을 몸과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인문학 대중화를 이끈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등 다수의 ‘열하일기’ 비평서와 ‘나비와 전사’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등의 책을 썼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3일 열린 ‘저자와 만나다’에서 고미숙씨는 공동체 속에서 공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하는 공부가 필요하며 몸으로 실천하는 공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각사 문화공간 로터스 제공)

‘인문학 서당’ 내달 9~13일 무각사서

인문학 서당은 문화공간 로터스가 인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로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무각사에서 열린다.

고병권씨를 비롯해 류시성, 최윤영씨 등 연구공간 ‘수유 + 너머’ 강사진이 광주에 기거하며 운영할 이번 서당은 ‘몸으로 하는 공부-요가’, ‘고전강독-논어 공자

와 배움’, ‘읽고쓰기-독서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수업과 ‘홍길동전’ ‘열하일기’ 등 옛 시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보는 독서토론 형식으로 펼쳐진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어린이·청소년 대상 인문학 서당 운영 워크숍’도 진행된다. 문의 062-383-007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양윤리 문화 대토론회

광주·제주서 한·중 학술대회 28일까지... 200여명 참석

중국 윤리학회 안준천 회장을 비롯해 중국, 일본 학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저오즈중(상해 사범대 교수)의 ‘도교윤리사상의 화합사회건설에서의 가치’와 위너 씨(독일 함부르크대 명예교수)의 ‘서양화란-서양 윤리학과 문화의 경향’이라는 주제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동양윤리’ ‘동양문화’ 등 총 7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펼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해정 작 '나른한 오후'

청년 작가 한국화 그룹 ‘세발 까마귀’전

롯데갤러리 내달 11일까지

롯데 갤러리 광주점이 지역 젊은 작가 양성을 위해 기획한 ‘청년작가 그룹 초대전’ 첫 번째 전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이번에 초청된 팀은 한국화 그룹 ‘세발 까마귀’다.

회원들은 이번 전시에서 정통 한국화 등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윤준영씨가 선보이는, 장지에 공테

를 활용한 ‘내려놓음의 공간’은 화려한 채색과 먹 번짐이 인상적인 작품이며 최정아씨의 수묵담채 ‘흔적’은 은은한 꽃향기가 배어 나올 것 같은 그림이다.

또 정형경씨는 옛지도를 연상시키는 유화 작품 ‘정현경 땅’을, 박설씨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어떤 풍경’을 내놓았다. 그밖에 정준성·박해정·이건우·무비·이두환·조성훈씨 등이 참여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문화정책 소통의 장 27일 시의회에결탁위서

광주시의회와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시민소통 마당-제5기 광주 문화정책 소통 및 발전방안’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다.

김영집(지역문화교류홍남재단 문화시민위원장)씨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서동진(광주시문화수도정책관), 김하림(광주전남문화연대 공동대표)씨가 ‘민선 5기 광주 문화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김영남(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지원(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책위원), 이철우(전남도 CT연구소장), 황동원(전라남도맛집 편집장)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월봉서원 철학스테이 가보니

약자지결 꼬마 학동들 1박2일 유학 체험

“1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나온 서원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이런 곳이에요.”

24일 조선 중기 대표적인 유학자인 고봉 기대승 선생의 위패를 모신 광주 서원(광주시기념물 9호)이 오랫동안 초등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이날 교육문화공동체 ‘결’이 주관한 월봉서원 철학스테이에는 광주 석곡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현옥)

초등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아이들은 서원 내 기숙사 명성재에서 하룻밤을 숙박하며 서원 체험과 예절교육을 받았다. 첫날에는 서원 인근의 고봉선생 묘소와 학문을 논했던 권전암, 귀후재 등을 둘러보았으며 둘째날에는 서원에서 배우는 다례(茶禮) 체험, 자연놀이, 기념촬영 등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원스테이는 자연속에서 느낌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이라 특별한 격식

없이 진행했다.

꼬마 학동들은 첫날 저녁 흥진하 선생님의 지도로 빙월당에서 한국화 액자 만들기를 배웠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혼잡스럽고 어색했지만 금세 ‘묵향’에 빠져들었다. 서로 자기 그림을 자랑하며 즐거워했고 낙관을 찍으면서 선비가 판상 흐뭇해했다.

김민성(13) 군은 “조상들이 어떻게 공부했을까 알고 싶었는데 체험해보니 조금 이해 할 것 같고, 서원과 같은



월봉서원 철학스테이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24일 빙월당에서 한국화 액자 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교육문화공동체 결 제공)

문화재가 있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또 서원체험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원스테이를 진행한 김봉환씨는 “자연속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유교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게 구성

된 프로그램”이라며 “이런 문화재들이 좀더 잘 보존되고 활용된다면 훌륭한 교육의 장,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432-131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닝녀가발

타사제품 : 1회 관리서비스 체험전스 6월1일-7월 31일까지 (예약제)

초슬림!! 각 50만원

귀여운 몸무게와 탄력을 높여주는 경쾌한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 062-873-3888, 873-4822, 062-873-3888, 062-873-3888

한불화장품 코랑스사업부에서 방문판매 대리점(지사장)을 모집합니다.

Physioban

LIERAC

062-2074-3311 1-800-3147